

“광주형 일자리 노사 지혜 모아주면 전폭 지원”

문 대통령 신년회전...“현대차 국내 생산라인 만들어야 할 때”
일자리 해결·혁신 성장 강조...“북미정상회담후 김정은 답방”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다시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사 간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가 한국에 새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됐느냐”면서 “아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데, 이제 생산 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1996년 충남 아산 공장을 지은 뒤 국내 신설 투자를 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함께 잘사는 길”을 역설하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잇달아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노사 간의 지혜와 국민적 성원을 당부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가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기해년(己亥年) 새해 최대의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진

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선(先) 북미정상회담 후(後) 답방’ 순서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어떤 형태든 남북 정상에 마주 앉아서 북미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민간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진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126분간 회견을 이어가며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협상팀 재정비...광주형 일자리 협상 재가동

일자리 특보 신설 노동계 소통
현대차와 협상테이블 다시 마련

대한민국 제조업 재생의 대안으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재성사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가 지역노동계와의 소통, 노동 정책 반영 등을 위해 시정 내에 4급 서기관 노동협력관에 이어 2급 상당의 일자리특보를 두기로 하는 등 협상팀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현대자동차와도 다시 마주 앉았다.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자리 특보는 지역노동계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무게감 있는 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물색에 들어갔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최종협약서 조인식이 무산된 뒤 지역노동계와 현대자동차를 다시 협상테이블에 불

러 앉히기 위한 물밑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친노동계 인사들을 시정 조직 내로 흡수해 지역노동계를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최근 “광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단 광주형 일자리 사업만이 아니라 향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친노동계 인사들을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대차와의 협상도 재개하는 모양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손경호 전략산업국장 등이 이날 함께 서울로 가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차와 지역노동계가 표면적으로 갈등을 빚은 원인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신설법인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지역노동계는 3~5년간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하

는 것으로 받아들여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26년만의 국내 투자, 추가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우선 지역노동계를 설득해 협상테이블로 이끌고, 현대차와 조율하면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안을 만드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월 초 설 연휴 이전에 최종 협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빗그림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SUV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평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광산구 습지 훼손 주차장 추진 논란
환경단체 “보호구역 지정해야” ▶6면

HNT 하나투어

천년역사의 신비로움 앙코르왓!

무안 ➔ 캄보디아

단4회! 2월 2일, 6일, 9일, 13일 출발

ARPF01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 5일

현지지불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949,000원~

하나팩

오감만족 가족여행지!

무안 ➔ 대만

단1회! 실연휴 2월 2일 출발

ATPF01 대만/지우펀/야류 4일

현지지불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1,249,000원~

하나투어 프리미엄르트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임금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부착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천/불편합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